

A MORE PACIFIC

HYANGJANG

ALL ABOUT BEAUTY

당신을 더 아름답게 할 뷰티 노하우

PRODUCT 여름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

SPECIAL 활력 넘치는 여름 피부

MAKEUP PLAY 개성 있는 립 메이크업

JUNE 2022 VOL.644

- 02 NEWS
6월의 가장 핫한 뉴스
- 06 NEWS-TREND
컬러풀 아이즈
- 08 MAKEUP
반짝이는 글로시 메이크업
- 14 PRODUCT
여름의 머스트해브 아이템
- 20 SPECIAL
활력 넘치는 여름 피부
- 28 MAKEUP PLAY
개성 있는 립 메이크업
- 32 FOCUS
아모레퍼시픽
- 34 FOCUS
헤라
- 36 FOCUS
프리메라
- 38 THIS MONTH'S PICK
설화수
- 42 ITEM
피부 고민별 앰플
- 44 INTERVIEW
아름다움을 나누는 엄마와 딸
- 46 SKINCARE
잡티 없애는 노하우
- 48 ICON
6월의 인테리어
- 52 REVIEW
간간한 품평단의 품평 리뷰
- 54 PLACE
커피 맛집
- 56 EDITOR'S PICK
6월의 강추템

SINCE 1958

〈화장〉은 1958년 '화장계'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이후 현재까지 65년간 644호를 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의 월간 뷰티 매거진입니다.



MAIL
HYANGJANG@MCKKOREA.COM



WEB
WWW.APGROUP.COM



COPYRIGHT 2022
AMOREPACIFIC

(주)아모레퍼시픽의 동의 없이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행일 2022년 6월 1일

발행 통권 644호

발행인 안세홍

편집인 홍재욱

발행 (주)아모레퍼시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제품 문의 080-023-5454

제작 문의 방판 컨텐츠팀

인쇄 (주)태신인쇄 02-853-6574

인쇄인 서명현

기획·편집 MCK Publishing Co., Ltd

에디터 최향진, 이성진, 이미경

디자인 Pentagram

※〈화장〉은 WWW.APGROUP.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국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는 방문판매용 매거진입니다.



A.C.E.
VITAMIN C30

Pure vitamin C
30%

IOPE

HYANGJANG JOURNAL

editor LEE MI KYUNG



지난해 수많은 골린이를 낳은 골프부터 테니스, 승마, 사이클링 등 2022 S/S 런웨이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정신이 포착된다. 엔데믹 시대를 앞두고 바깥 활동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이번 시즌, 스포츠의 흥과 열정이 패션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스포티 룩은 더욱 인기를 모을 전망이다.

먼저 다음은 영화 <록키>가 떠오르는 복싱 룩을, 발렌시아가는 블랙 아우터와 트랙 팬츠에 포멀한 백과 슈즈를 더한 믹스 매치로 편안하면서도 쿨한 애슬레저 룩을 공개했다. 스포티하면서도 단정한 분위기를 보여준 다음은 두꺼운 밴드가 특징인 브라톱과 하이웨이스트 쇼츠, 박시한 아우터와 셔츠를 레이어드해 세련된 복싱 룩을 완성했다.

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하이패션과 접목한 스포티 룩은 다양한 자태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내며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스포츠웨어도 한없이 우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바람에 자연스럽게 훑날리는 아노락과 윈드브레이커가 런웨이를 장악했다. 아노락을 드레스처럼 연출한 토츠, 지퍼 장식 아일릿 드레스를 선보인 MSGM, 컷아웃 드레스에 롱 윈드브레이커를 덧입은 스티라 매카트니 등이 그 예. 그런가 하면 로에베는 자

NEW SPORTISM : 가벼운 아우터, 경쾌한 크롭트 톱이 싱그럽다. 레트로와 모더니즘이 만나 쿨하거나 우아한 에티튜드로 시크하게 즐기는 모던 스포티즘.



CHANEL

MAXMARA

LACOSTE

ERMANNO SCERVINO

SOPHIA NUBES

연스럽게 흐르는 드레이핑 아우터와 오버사이즈 와이드 팬츠 셋업으로 스포티하면서도 페미닌한 무드를 극대화했다. 테니스 룩도 빼놓을 수 없다. 전형적인 피케 셔츠와 플리츠스커트 대신 스트라이프 패턴 슬리브리스 톱과 쇼츠, 선캡, 니삭스 등 테니스 하면 떠오르는 아이템을 조화롭게 매치한 라코스테 컬렉션의 스타일링은 무결점을 넘어 100점 만점에 100점 수준. 프라다의 탄탄한 슬리브리스 톱과 스커트도 놓치지 말아야 할 아이템이다. 가슴 바로 아래에서 잘린 톱과 셔츠, 니트 스웨터를 매치한 미우미우를 비롯해 막스마라, N°21 등의 컬렉션에서 크롭트 톱 같은 스포티즘 요소를 시티 웨어로 응용하는 스타일링도 매력적이다. 점점 짧아지는 크롭트 톱이 부담스럽다면 에르메스 컬렉션을 참고할 만하다. 하이웨이스트 쇼츠로 노출을 줄이면서도 다리는 길어 보이는 시크한 모던 스포티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메이크업은 시크하고 세련된 스포티 룩에 걸맞게 약간 상기된 듯 건강한 룩이 제격! 자연스러운 윤기로 빛나는 피부에 코랄이나 피치 계열 블러셔로 햇살에 그을린 듯 건강한 생기를 더하면 완성된다. **10**

PHOTOGRAPHY: WWW.GETTYIMAGESKOREA.COM, 데이지데이즈, 레퍼토, 몰스킨, 오토사이트, 페이스몬트, 엠베서더 서울 호텔, 마린포사, 펠립스코리아

비건을 위한 슈즈

동물 착취를 막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건이 먹거리는 물론 생활용품, 패션업계까지 퍼져 나가는 추세에 발맞춰 레페토가 비건을 위한 발레 슈즈 '릴리'를 선보인다. 릴리는 동물 가죽 대신 면과 고무, 식품 산업에서 버려진 자원을 리사이클링한 카마로그 쌀 껍질 소재에 신발 몸체와 힐을 동일한 컬러로 제작했다. 브랜드 고유의 우아한 무드와 헤리티지에 현대 리사이클링 기술을 결합한 환경 친화적 디자인으로 블랙, 레드, 핑크, 오렌지, 블루 총 다섯 가지 컬러로 선보여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문의 레페토(www.repetto.kr, 02-540-2065)



HYANGJANG JOURNAL

여름이 연상되는 빛깔의 경쾌한 서머 룩

데이즈데이즈는 여름의 새벽안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질푸른 바다, 해 질 녘 노을을 닮은 서정적인 색으로 물든 서머 룩을 선보인다. 여름에 어울리는 아쿠아블루, 라임 그린, 핑크를 키 컬러로 소프트한 그레데이션과 몽환적인 홀로그래픽, 경쾌한 스트라이프 등을 가미한 이번 컬렉션은 수영복 등 리조트 웨어부터 레디투웨어 라인까지 폭넓게 구성했다. 핑크와 그린의 색감이 돋보이는 재킷과 스커트로 이뤄진 투피스, 사이니한 소재의 블라우스, 빈티지한 트워드 세트 등을 만날 수 있으며 강렬한 컬러와 레트로 무드로 관능적이면서도 밝고 유행 있는 여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데이즈데이즈(www.dazedayz.com, 070-4870-3062)



우유 같지만 우유는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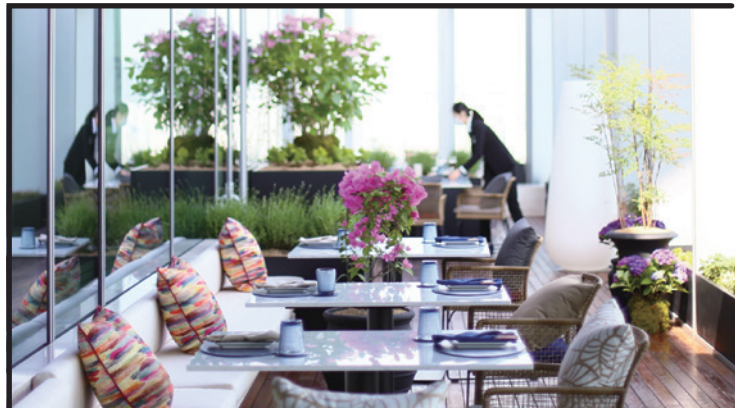
비건 대중화 시대, 건강에 이로우면서도 맛있는 우유를 대신할 음료를 찾고 있다면 귀리로 만든 비건 밀크 오프사이드를 눈여겨보길. 호주산 청정 귀리 100%로 만든 식물성 음료로 풍부한 맥아와 견과 향이 인상적이며 특유의 크리미한 텍스처 덕분에 목 넘김도 부드럽다.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과 칼슘이 풍부하며 유당이나 견, 유화제, 보존제, 인공 향미료 등 불필요한 성분을 배제해 건강을 해칠 염려 없이 즐길 수 있다. 우유 대비 탄소 배출량이 70% 적고 물과 토지 사용이 90% 줄어 친환경적인 것도 장점. 바리스타 블렌드, 초콜릿 맛 두 가지로 출시하며 단독으로 마셔도 맛있고, 커피나 차 또는 시리얼과 곁들여도 매력적이다. 문의 오프사이드(02-594-1117)



가장 우아하고 실용적인 노트

노트에 아날로그적 매력을 여전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몰스킨이 이탈리아산 벨벳으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컬렉션을 선보인다. 노트 커버는 이탈리아 북부 울리오강 유역에 위치하는 130년 전통의 유서 깊은 기업, 폰토글리오1883(Pontoglio 1883)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최고급 프리미엄 벨벳으로 제작했다. 우아한 분위기의 시클라멘 핑크, 아이리스 퍼플, 보틀 그린, 블랙까지 총 네 가지 색의 최고급 벨벳 커버로 선보여 소장 가치가 높고, 확장형 메모 포켓을 더한 라지 사이즈로 실용성과 활용도가 뛰어나다.

문의 몰스킨(www.moleskine.co.kr, 02-554-0911)



한강 뷰 루프톱 테라스의 맛

루프톱 테라스에 앉아 즐기는 여유가 그림자면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29층에 위치한 모던 유러피언 레스토랑 '마리포사'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탁 트인 서울 도심과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에서는 상쾌하고 환상적인 전망을 눈에 담으며 토스카나 스타일의 스테이크와 캐비어, 모듬 해산물 등 시즌별로 셰프가 선보이는 코스 메뉴를 비스포크 칵테일이나 샴페인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낮에는 가족, 친구들과 여유로운 식사를 하기에 제격이고, 밤에는 환상적인 서울의 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런치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디너는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한다. 문의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마리포사(02-3395-6000)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착한 주방 가전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친환경 주방 가전, 필립스의 친환경 에코 키친 세트는 몸체 부분을 식물성 폐식용유를 재활용한 100% 바이오 베이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절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포장도 친환경적인 것이 장점. 제품 1개 구매 시 나무 한 그루를 심어 선물하는 에코 모닝 나무 심기 캠페인을 진행해 환경 보호에도 동참할 수 있다. 제품 상자에 부착된 QR 코드에 접속해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나만의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며, 이름 지정과 위치 확인은 물론 실시간으로 나무가 자라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문의 필립스코리아(www.philips.co.kr, 1611-0083)

컬러 온 아이즈

여릿한 파스텔컬러부터 강렬한 비비드 네온 컬러까지 이번 시즌 런웨이에 오른 모델들의 눈가는 다채롭고 감각적인 색으로 채워졌다.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MI KY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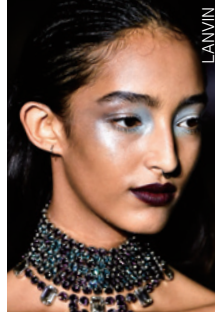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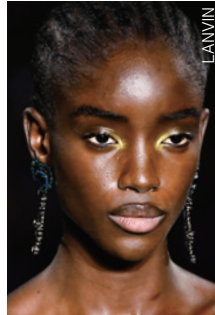


헤라 블랙 쿠션
SPF34/PA++
15g×2,6만6천원.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 SPF20/PA++
30g, 6만8천원.





헤라 색도 듀오.
#09 플로렌스, 4g,
3만8천원.



포인트는 뭐니 뭐니 해도 생기와 화려함이다. 2022 S/S 컬렉션 쇼에 등장한 모델들의 얼굴, 특히 눈가에 내려앉은 컬러는 부드러운 파스텔 컬러부터 핑크,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네온 컬러까지 다채롭게 공존하며 폭넓은 선택지를 제시한다. 특히 두루 활용하기 알맞은 핑크는 언제나 환영받는 컬러, 팬톤이 올해의 컬러로 선정한 보라색인 베리페리도 눈에 자주 띈다.

프라발 구롱 쇼에서는 눈머리와 눈꼬리에 비비드 그린 컬러를 터치했고, 베르사체의 모델들은 스카이블루와 네온 그린 컬러를 겹쳐 눈두덩이를 뒤덮을 정도로 굵은 아이라인을 선보였다. 그런가 하면 조르지오 아르마니 쇼에 선 모델들은 스카이블루, 민트 등 여러지만 존재감 강한 파스텔 컬러의 펠 아이섀도를 활용해 우아하면서도 생기 넘치고 빛나는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했다. 량방 쇼에 등장한 모델들은 눈머리에는 민트, 중간에는 옐로 오렌지, 눈꼬리에는 라벤더 등 은은한 파스텔컬러 두세 가지를 이용해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했다.

포인트가 되는 컬러 아이섀도를 바를 때는 베르사체의 모델들처럼 눈머리에 실버 펠을 터치해야 눈매가 답답해 보이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량방의 모델들처럼 눈 앞쪽과 뒤쪽에 은은한

컬러 아이섀도로 부드럽게 표현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 분위기가 다른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프로엔자 스크러의 모델들처럼 팍한 네온 컬러 아이섀도를 선택했다면 입술과 볼 등 다른 색조 메이크업은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스러운 광채가 흐르는 듯 표현할 수 있는 하이라이터로 가볍게 터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컬러를 넘어 조금 더 대담한 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과감히 글리터 아이섀도를 사용해보자. 연출하기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별다른 메이크업 스킬 없이도 큰 효과를 발휘하므로 자신 있게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단,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컬러를 잘 표현하고 싶다면 전용 프라이머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아이 전용 리퀴드 프라이머로 메이크업 전 눈가를 매끄럽게 정돈하면 피부 톤이 보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섀도의 발색력을 높이고 장시간 컬러를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다.

편안하면서도 격식을 차린 느낌을 내는 것도 섬세한 아이 메이크업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노하우다. 그라야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것 못지않게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자. **LD**



A close-up photograph of a woman's eye, looking slightly to the left. Her eye is dark brown and has a glossy, shimmering appearance. Her skin is fair and has a subtle, dewy glow. Her hair is dark and appears to be pulled back. The overall aesthetic is soft and elegant, focusing on the texture and shine of the makeup.

GLASSY, GLOSSY,

유리처럼 반짝이고, 이슬처럼 촉촉하게. 투명하고 청량한 글로시 메이크업.

photographer KIM SUN HYE editor CHOI HYANG JIN

GLISS!

ON LIPS

오랜 시간 잊었던 립글로스가
Y2K 트렌드와 함께 부활했다.

유리구슬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입술을 원한다면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422 란제리를
입술에 도통하게 올려 핑크빛 글로시
립을 완성해보길.





ON FACE

이번 시즌 글로시 메이크업의 특징은
입술뿐 아니라 2000년대를 풍미한
물광 피부가 돌아왔다는 점.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얇게 바른 뒤 페이스 미스트를
뿌려 촉촉하게 마무리하고, 헤라
센슈얼 프레쉬 립 오일 #002 노
네임을 광대뼈와 입술 산에 터치해
광택감을 더한다.

ON EYES

헤라 루즈 홀릭 매트 #311 솔리드
레드를 입술에 꼭 채워 바른 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번진 듯
연출하고, 손가락에 묻은
립스틱을 눈두덩이에 발라 레드
색감을 더한다. 눈두덩이에 헤라
센슈얼 프레쉬 립 오일 #002
노 네임을 얇게 덧발라 글로시한
눈매를 완성한다.



ALL-OVER FACE

글로시 메이크업의 하이라이트. 얼굴 전체에 광택감을 더한 이 메이크업은 깨끗한 피부가 핵심. 얼굴에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르고, 커버가 필요한 부위에 한 번 더 덧발라 완벽한 피부로 표현한다. 눈과 입술에는 코렐 계열의 립 제품을 아주 얇게 펴 바르고 헤라 센슈얼 프레쉬 립 오일 #002 노 네임을 덧발라 코팅한 듯한 광택감을 부여한다.

MODEL: ARA, MAKEUP: JAMIE YOON, KIM DONGHYUNG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태양에 맞서라

점점 강렬해지는 자외선과 무더워지는 날씨,
여름과 태양 앞에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뷰티 아이템.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LEE MI KYUNG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SPF50+/PA+++, 15gX2, 12만원.

#고보습안티에이징쿠션
#강력한차나무꽃에너지
#럭셔리광채피부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컴플릿 쿠션 컴팩트 SPF50+/PA+++

얼굴에 부드럽게 발리고 편안하게 밀착해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로 연출해주는 쿠션.

여기에 더해 궁극의 안티에이징 성분인 AbsoluTea™와 가을 다원에 피어나는 차나무꽃 추출물, 붕철 단 20일만 수확할 수 있는 첫물차수 등 고귀한 차나무 원료를 담아 피부를 건강하게 가꿔준다. 자외선과 미세먼지 등 유해 요소를 차단하고, 입자가 미세한 다이아몬드 파우더와 글로우 코팅 파우더를 함유해 빛나는 럭셔리 광채 피부를 완성해준다.

헤라 UV프로텍터 멀티디펜스
SPF50+/PA++++

자외선 차단은 물론이고 주름 완화, 미백까지
가능한 3중 기능성 데일리선크림으로
자외선과 미세먼지, 블루라이트와 적외선까지
확실하게 차단해준다. 특히 자외선에
노출되면 안티에이징 기능이 더욱 강해지는
더모 네트워크 프로텍션™20과 모란-작약
컴플렉스가 자외선으로부터 자극 받은 피부의
생기를 되찾아준다.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며
건강하고 윤기나는 피부를 선사해준다.

헤라 UV프로텍터 멀티디펜스 SPF50+/PA++++, 50ml, 4만원.

#초강력5중차단
#촉촉한수분자차
#안티에이징선크림

HERA

UV
PROTECTOR
MULTI-DEFENSE

BROAD SPECTRUM
UV PROTECTION
HYDRATING SUN CREAM

UVA UVB-IR-BLUELIGHT-POLLUTION
SPF 50+ / PA++++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 200g, 3만5천원.

#브라이트닝클렌저
#딥클렌징
#산뜻한사용감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

피부의 묵은 각질과 피지, 노폐물을 깨끗하게 클렌징해 매끄럽고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 세정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 핑크빛 셀룰로오스 비드와 미세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피부를 맑고 화사하게 가꿔준다. 독자 성분인 멜라솔브™가 강력한 브라이트닝 효과를 발휘하며 올리브 오일을 바탕으로 한 계면활성제를 함유해 세안 후에도 얼굴이 땅기지 않고 산뜻하다.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 SPF20/PA++

정교한 입자가 얼굴에 가볍게 밀착되어
원래 내 피부인 듯 자연스럽게 커버되고,
예쁜 피부결이 오래 유지되는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 하이드로 랩핑 피그먼트가
스킨케어 제품처럼 부드럽게 발리고
속건조 없이 편안하게 유지되는 포몰라이다.
시간이 지나도 활하고 생기있는 피부 표현이
지속되며, 주름과 모공을 매끄럽게 커버하여
피부 속광이 은은하게 살아나는
피부 표현을 완성해준다. 여름철 더위에도
수정화장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놀라운
지속력을 선사한다.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
SPF20/PA++. 30g, 6만8천원.

#예쁜결파데
#실키파데
#깔끔하고강력한지속력





primera

Skin Relief
UV Protector EX
SPF50+ PA++++

Specialty
Easy Washable,
Blue-light Protection(In-vitro)

Key Ingredients
Balancing Powder,
Black Bean Sprout

Benefits
Sun Protection, Refreshing
Net. 1.69 fl. oz.

프리메라 스킨 릴리프 UV 프로텍터 EX
SPF50+/PA++++, 50ml, 3만원.

#수분베이스자차
#블루라이트차단
#촉촉하고산뜻한선크림

프리메라 스킨릴리프 UV 프로텍터 EX SPF50+/PA++++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UVA, UVB 자외선과 블루라이트 등을 동시에 차단해주며 보습 효과가 뛰어난 저자극 자외선 차단제.

동물성 원료와 광물성 오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배제하고 녹차 추출물을 함유해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땀과 피지를 흡착해 산뜻하게 마무리되며 수분감이 풍부해 수분 크림을 바른 듯 피부가 촉촉한 데다 피부를 자연스럽게 생기 있게

밝혀주고 맑은 톤으로 보정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아이오페 A.C.E 비타민 C30. 23g, 8만원.

#고강도안티에이징애플
#순수비타민C30%
#초강력항산화



아이오페 A.C.E 비타민 C30

순수비타민C30%를 담아 탄력 있고 팽팽한 피부를 되찾게 해주는 고강도 안티에이징 레드 애플.

아이오페의 20여 년 비타민 연구 역사 끝에 찾아낸 안정화 기술과 혁신 용기 조합으로 순수비타민 고함량에도 피부에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비타민 E, 중년 피부 건강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비타민 B₁₂, 석류추출물, 페룰산)을 더해 피부 항산화력을 끝까지 채워주어 더 빠르고 확실해진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다. 

여름 활력 충전 완료

다소 소극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지난 두 번의 여름은 잊자.
뜨겁고 강렬한 여름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지치지 않는 활력이다.

photographer KIM SUN HYE(인물), JUNG J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1

더 빛날 피부를 위해

햇볕에 적당히 그을린 피부는 건강해 보이지만, 피부가 칙칙해져 톤이 어두워지면 실제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다. 무엇을 발라도 피부에서 맑은 광채가 나지 않는다면, 피부 속 산화와 당화 작용에 주목해야 한다. 활성산소가 피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단백질과 지질에 포도당이 붙어 신체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는 당화 반응은 노화와 함께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피부 세포나 조직에 당화 반응이 일어나면 기능 저하, 구조 변형, 염증 반응이 나타 난다. 즉 세포

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해 또다시 노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결과적으로 주름이 생기거나 유연성이 떨어지고 피부 톤도 나빠진다. 따라서 건강하고 맑은 광채 피부를 원한다면 항산화와 항당화 작용에 특효를 보이는 제품을 골라 쓸 필요가 있다.

헤라 시그니아 루미네스 래디언스 앰플
항당화, 항산화 듀얼 정화 시스템이 맑은 광채 에너지를 풀어놓고, 3대 보석 성분이 눈부신 결광 피부로 가꿔준다. 산뜻하게 스며들어 여름에 쓰기에 부담이 없다. 40ml, 14만5천원.





#2

생생한 피부를 위한 보약

뜨거운 자외선과 열기 때문에 피부가 벌써 지친 것 같다면 피부에 보약 한 제 지어주는 것은 어떨까. 피부가 건조한데도 번들거리는 것이 싫어 무척대고 수분만 채우다 보면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피부가 더욱 메마르고 탄력을 잃기 쉽다. 이때 추천할 만한 것이 한약재 성분이 들어 있어 피부를 탄탄하게 다져줄 보약 같은 영양 크림. 구기자, 흑두, 갈근, 꿀처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탄력을 높여주는 성분이나 맥문동처럼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력 증진에 효과를 보이는 성분이 들었다면 금상첨화다.



설화수 탄력영양크림
구기자, 흑두, 갈근, 꿀 등으로 만든 자음영양단™과 맥문동 추출물이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키우고 영양을 공급해 탄탄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가꿔준다.
75ml, 12만원.



#3

홍삼의 힘으로 속부터 깨어나는 활력

한국인의 활력을 논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홍삼! 면역력 증진, 피로 해소,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촉진, 항산화 등 몸에 이로운 효과를 두루 발휘해 수많은 관련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홍삼의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내게 딱 맞는 제품을 골라 먹는 것이 관건. 홍삼에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회화나무추출물을 더한 갱년기 특화 프리미엄 앰플을 추천한다. 여름을 앞두고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명작수가 제격. 명작수는 아모레퍼시픽의 독자적인 초고압 인삼 가공 기술로 홍삼 고유의 유효 성분을 최대화한 천삼화 홍삼을 담아 피로 개선, 면역력 증진을 도와준다. 보다 강력한 활력을 얻고 싶은 이들에게는 뉴질랜드산 녹용, 인삼열매, 침향, 금강송엽, 백화고 등 진귀한 원료를 정성스럽게 담아 궁극의 활력을 제공하는 명작수천 앰플을 권한다.



1. 바이탈뷰티 명작수천

녹용과 인삼 열매, 침향 등 5대 원료를 담아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는 궁극의 활력을 더해주는 프레스티지 인삼 열매 녹용 앰플. 525g(25g×21앰플), 84만원.

2. 바이탈뷰티 자음보액

활력과 면역을 위한 홍삼과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화나무열매추출물을 함유하여 갱년기 여성의 생기와 활력을 되찾아주는 앰플. 750g(25g×30앰플), 15만원.

3. 바이탈뷰티 명작수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아 면역력 개선,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미엄 홍삼 앰플. 1000g(20g×50앰플), 28만원.



#1

활기를 잃은 눈가를 위한 특별 처방

얼굴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눈가는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강렬한 자외선 때문에 눈을 자주 찌푸리는 여름에는 눈가가 탄력을 잃어 처지거나 주름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 가장 시급한 일은 눈가에 에너지를 채우는 것. 식물의 생장에너지로 생기를 더하고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카페인 성분이 든 제품이 알맞다. 이미 눈가에 다양한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노화의 흔적을 지우고 매일 흐트러지는 피부 리듬을 바로 잡아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시켜 주는 제품이 필요하다.



1. 헤라 시그니아 유스퍼밍 아이크림
식물의 생장 에너지를 응축한 피토플라센타 성분이
눈가에 생기를 불어넣고, 카페인 성분이 피부에 활력을
더한다. 슈크림처럼 녹아들듯이 발려 눈 주변을 고루
가꿀 수 있다. 30ml, 20만원.

2.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아이 리저브 크림
시그니처 안티에이징 성분 AbsoluTea™와 여를 찾았의
카페인 성분이 지친 눈가 피부에 화사한 생기와 탄력을
부여하는 아이크림. 15ml, 29만원.

MODEL: LEE HYE SEUNG,
MAKEUP: JAMIE YOON, KIM DONG HYUN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LEE HYE YOUNG, STYLING: PARK MI KYUNG

#5 코어의 힘을 느껴보자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코어의 힘을 잃지 않는 것이다. 몸과 척추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코어 근육은 그 기능이 떨어지면 통증을 유발하거나 움직임에 제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코어가 중요한 것은 피부도 마찬가지. 코어가 탄탄하면 웬만한 자극에는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주름이나 모공, 잡티 등 단편적인 문제를 떠나 전반적인 노화가 걱정이라면 피부 코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터. 식물에서 얻은 작은 크기의 활성 성분들이 피부 속 깊은 곳에 침투해 활력을 깨우면 탄력이 불고 모공

이 줄어들며 팽팽해지고 주름이 완화되는 등 피부가 고루 개선되는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 수 있다. ①

1. 헤라시그니아 코어 리프팅 세럼

나르시스 식물세포의 마이크로 활성 성분이 피부의 활력을 깨우고, 멀티 펩타이드가 탄탄한 탄력을 더한다. 수분막을 형성해 피부를 촉촉하고 유연하게 가꾸는 효과도 있다. 50ml, 24만원.

2. 헤라시그니아 바이탈 리프팅 크림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피부결을 촘촘하게 채워 젊음의 탄력을 되찾아주는 크림. 벨벳처럼 매끄러운 보습막을 형성해 탱탱하고 유연하게 가꿔준다. 60ml, 30만원.





마스크를 벗은 입술

코로나 시대의 끝자락, 마스크에 가려졌던 입술을 드러낼 준비가 필요한 때. 같은 컬러 립스틱도 더 독특하고, 더 재미있게 바르는 방법을 소개한다.

photographer PARK HYUN JIN
editor CHOI HYANG JIN

LOOK
1

GRADATION LIPS

매일매일 바르던 립스틱이 지겹거나 색이 너무 진해 손이 가지 않는 처치 곤란한 립스틱이 있다면 그레데이션 립에 도전해보자. 입술 안쪽에 립 제품을 살짝 바른 뒤 손가락이나 브러시를 이용해 바깥쪽으로 물들이듯 살살 펴 바르면 끝.

FACE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라 깨끗하고 투명한 피부를 완성한다.

EYES

아이 메이크업은 하지 않거나 유분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스킨 톤 아이섀도를 살짝 바른 뒤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발라 눈매를 선명하게 강조 한다.

LIPS

1. 입술 가장자리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살짝 발라 입술 선이 두드러지지 않게 한다. 2. 입술 안쪽에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45 포에버 영을 들쭉 바른 뒤 손이나 브러시를 이용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살 펴 바른다.

POINT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145
포에버 영, 5g,
3만7천원.

HERA

LOOK
2

DISTINCT LIP LINE

1990년대를 주름잡았던 언니들에게 희소식! 보랏빛 짙은 립스틱부터 립 라이너까지 그 시대에 유행하던 메이크업이 돌아왔다. 립 라이너로 입술 선을 선명하게 그리고 그 안을 연한 컬러로 메우는, 립 라인을 강조한 메이크업에 도전해보자.

FACE

헤라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라 은은하게 빛나는 피부로 완성한다.

EYES

헤라 색도 듀오 #02 이지고잉을 눈머리와 언더아이래쉬 라인에 살짝 발라 음영을 살리고, 헤라 아이 디자인러 펜슬 1호 블랙으로 아이라인을 길게 빼 그린다.

LIPS

1.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369 어나더로 입술 산을 뾰족하게 살려 립 라인을 그린다. 2.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288감을 입술 안쪽부터 립 라인에 바둑하게 짝 채워 바른다.

POINT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369
어나더, 9g,
3만7천원.





LOOK

3

DIFFERENT LIP COLORS

위아래 입술 두께의 차이가 커 립 메이크업을 하기가 까다롭다면 과감하게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각각 다른 색을 발라보자. 미묘하게 다른 색이 입술 두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해줄 것이다. 메이크업의 재미를 더해주는 것은 덤.

FACE

헤라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라 피부에 밀착시킨다.

EYES

헤라 색도 듀오 #06 라이커블로 음영을 살린 뒤 헤라 센슈얼 프레쉬 립 오일 #002 노네임을 덧발라 눈가를 촉촉하게 표현한다.

LIPS

1. 헤라 루즈 홀릭 매트 #198 델리카시를 입술 전체에 꼭 채워 바른다.
2. 아랫 입술에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 #382 레드 라이를 덧바른다.

POINT



헤라 루즈 홀릭 매트 #198 델리카시, 3g, 4만원.



LOOK
4

SMUDGED LIPS

입술이 얇다면 립스틱을 입술보다 살짝 두껍게 발라보자. 그런 다음 립 라인을 살짝 뭉개 입술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스머지 립을 추천한다. 입술이 자연스럽게 도통해 보일 뿐 아니라 립스틱이 번져도 티가 잘 나지 않는다.

FACE

헤라 실키스테인 파운데이션을 얇게 발라 피부에 밀착시킨다.

EYES

브라운 계열의 쉬머한 필감이 느껴지는 색도를 눈꼬리에 포인트로 바르고 헤라 리치 롱래쉬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1호 블랙을 듬뿍 바른다.

LIPS

1. 헤라 루즈 홀릭 매트 #311 솔리드 레드 립을 입술에 딱 채워 바른거나 립 라인을 살짝 벗어나도록 바른다. 2. 립 브러쉬나 면봉을 이용해 립 라인을 살짝 뭉개 번진 듯 연출한다.

POINT



헤라 루즈 홀릭
매트 #311
솔리드 레드. 3g,
4만원.



MODEL: AKARI, MAKEUP: LEE YOUN SUN, CHA MIN KYUNG (AMORE PACIFIC MAKEUP PROFESSIONAL TEAM),
HAIR: PARK CHANG DAE, STYLING: PARK MI KYUNG

촉촉하고 탱탱한 수분 플럼핑 피부 완성

수분과 탄력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면 왕대나무에서 얻은
뱀부 넥타 성분으로 수분이 팍 찬 탄력 피부로 바뀌주는 아모레퍼시픽
모이스춰 플럼핑 넥타 크림을 추천한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아모레퍼시픽

모이스춰 플럼핑 넥타 크림

1

수분 플럼핑 피부의 비결, 뱀부 넥타

아모레퍼시픽 모이스춰 플럼핑 넥타 크림의 핵심 성분은 뱀부 넥타. 인체의 수분과 구성 성분이 유사한 왕대나무 수액과 피부를 플럼핑해 탄력을 높이는 왕대나무 진액으로 구성된 뱀부 넥타가 피부에 즉각 수분을 공급하고 탄력을 높이며, 건조해 무너진 탄력 도미노를 바로 세워 수분 탄력 피부를 가질 수 있다.

2

360도 전방위 절대 수분 보습, 넥타 플럼핑 포뮬러™

뱀부 넥타의 놀라운 효능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고안한 특허 기술은 넥타 플럼핑 포뮬러™. 크림을 피부에 바른 뒤 크림 포뮬러 속 미세한 캡슐이 터지며 잘게 쪼개진 효능 성분이 피부 깊숙이 빈틈없이 침투해 차원이 다른 깊은 보습감을 선사한다.

3

피부 친화 안심 포뮬러

피부 지질에서 온 성분을 그대로 함유하여 피부 장벽을 강화함으로써 탄탄한 보습을 실현해준다. 일반 화장품에 들어 있는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안심 포뮬러라 더욱 믿음직하다.

COMMENT

“역대급 수분 크림. 산뜻하고 가볍게 발리면서도 수분과 영양감은 찝득한 크림 못지않게 탁월하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여름철 산뜻하고 가벼운 수분 크림을 원하면서도 탄력 케어는 포기 못 하는 사람들에게 강추한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김희진

POINT 1

인체의 수분과 닮은 왕대나무 청정 재배 뱀부 넥타

POINT 2

얇고 가볍게 발리면서도 차원이 다른 보습감

POINT 3

자극을 최소화한 피부 친화 안심 포뮬러



아모레퍼시픽 모이스춰
플럼핑 넥타 크림
건조해 무너진 탄력을
왕대나무 수액과 진액으로 꽉
채워 수분으로 차오르는 듯한
수분 플럼핑 효과를 선사하는
크림. 50ml, 15만원.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 SPF20/PA++
처음 바른 피부결 그대로
가볍고 실키하게 시간을 잊을
수 없는 피부를 완성시켜주는
파운데이션. 30g, 6만8천원.

첫 화장 그대로 유지되는 예쁜결 파데

마스크에 가려졌던 얼굴을 드러내야 할 때, 실크같이 부드러운 발림으로 속광이 은은하게 살아나는 매끄러운 피부결을 선사하는 헤라의 새로운 파운데이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POINT 1

실크처럼 매끈한
커버력

POINT 2

하루 종일 유지되는
탁월한 지속력

POINT 3

다크닝 없이
오랫 동안 지속되는
화사함

* 인체적용 시험결과. 시험 대상:
만 20~35세 성인 여성 31명,
시험 기간: 2021년 12월 13일~17일,
시험 기관: (주)글로벌의학연구원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

①

실키 피니쉬

헤라 실키 스테이 24H 롱웨어 파운데이션의 모든 장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 첫 번째 장점은 '실키'함. 정교한 입자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주름과 모공까지 매끈하게 커버하여 원래 내 피부가 좋았던 것처럼 가장 예쁜 피부로 표현해 준다.

②

24시간 지속되는 롱웨어 포뮬러*

모공과 결 커버, 윤기와 컬러가 24시간 유지됨을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입증해 탁월한 지속력을 인정받았다. 뭉침이나 묻어남, 들뜸이 덜해 시간이 지나도 처음 피부결이 지속되며, 리터치를 해도 첫 화장의 느낌이 그대로 유지된다.

③

부드러운 텍스처

입자를 수분으로 한 번 감싼 하이드رو 랩핑 피그먼트가 피부에 터치하는 순간, 스킨케어 제품처럼 촉촉하고 쫄쫄하게 스며드는 부드러운 텍스처가 일품. 또한 다크닝도 막아주어 처음의 화사함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COMMENT

“바르는 순간 수분감이 탁월해 커버력이 좋을까 걱정되었지만, 웬걸. 한 번만 발라도 잡티는 물론 피부 요철과 모공까지 매끈해진다.”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미경

“한 번만 발라도 완벽하고, 여러 번 레이어링 해서 바르면 더 완벽한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피부에 정말 얇게 밀착되기 때문인 듯.”

-뷰티 콘텐츠 디렉터 이성진

매끈하고 섬세한 피부결을 위한 솔루션

건강한 피부를 위한 첫 단계는 피부 턴오버 주기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
프리메라 페이스일 마일드 필링과 페이스일 인텐시브 필링은
거친 피부결을 정돈하는 동시에 피부의 재생 주기를 바로잡아준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프리메라

페이스일 마일드 필링 & 페이스일 인텐시브 필링

1

취향별로 골라 쓰는 필링제

프리메라는 두 종류의 필링 제품을 선보여 피부 상태나 취향에 따라 골라 쓰는 맞춤 케어가 가능하다. 피부 장벽이 약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민감해진다면 페이스일 마일드 필링을, 내추럴 셀룰로오스를 함유해 블랙 헤드나 화이트 헤드는 물론 구석구석 묵은 각질까지 말끔히 제거되는 개운한 사용감을 원한다면 페이스일 인텐시브 필링을 선택하면 된다.

2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발아 브로콜리, 멀구슬나무 추출물

페이스일 마일드 필링과 페이스일 인텐시브 필링에는 피부 정화 효과를 지닌 발아 브로콜리 추출물과 피부를 보호해주는 멀구슬나무 추출물이 들어 있어 각질 제거와 동시에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3

저자극 안심 포뮬러

페이스일 마일드 필링은 파라벤, 인공 향, 합성색소 등 유해성 논란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사용 후 피부와 유사한 보호막인 바이오 폴리머 필름을 형성해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준다. 페이스일 인텐시브 필링은 내추럴 셀룰로오스를 사용해 각질은 말끔히 제거하면서도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COMMENT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 필링제 선택에 신중한 편인데, 프리메라 페이스일 마일드 필링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마리끌레르> 뷰티 에디터 김상은

“메이크업 전에 프리메라의 필링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결이 매끈해져 베이스 메이크업이 한층 더 잘 받는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영

POINT 1

저자극
마일드 필링

POINT 2

건강한 피부를 위한
발아 브로콜리,
멀구슬나무 추출물

POINT 3

건조하지 않은
촉촉한 필링

프리메라 페이스얼 마일드 필링

부드러운 각질 관리로
피부결을 매끈하게 개선하고,
바이오 폴리머 필름을 형성해
필링 후 수분 손실까지
방지해주는 필링 젤.
● 150ml, 3만원.



프리메라 페이스얼 인텐시브 필링

내추럴 셀룰로스가
메이크업은 물론 피부
구석구석 쌓인 묵은 각질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필링 젤.
150ml, 3만원.



더 탄탄하게, 더 화사하고 깨끗하게

마스크에 감춰져 있던 기미와 잡티는 물론 탄력을 잃은 피부까지
고스란히 드러나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탄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미와 잡티를
완화해줄 설화수 자음생세럼 브라이팅닝과 자음생앰플 브라이팅닝이다.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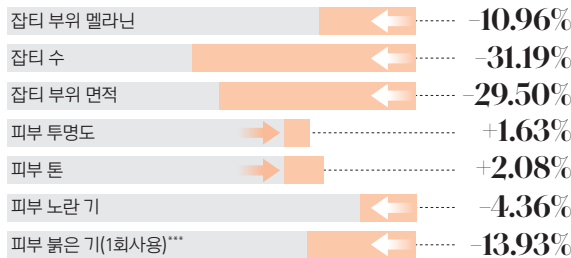
SURVEY RESULT

*시험 대상: 37~57세, 30명 | 시험 기간: 2021년 11월 30일~2022년 1월 26일
| 시험 기관: (주)글로벌의학연구원

설화수 자음생세럼 브라이트닝 8주 사용 후,
7가지 미백 항목 개선으로 입증한 토탈 브라이트닝 효과*



설화수 자음생앰플 브라이트닝 8주 사용 후,
인체 적용 시험으로 확인된 피부 변화**



**시험 대상 : 37~60세, 33명 | 2021년 11월 29일~2022년 1월 25일

| 시험 기관: (주)글로벌의학연구원

*** 열 자극에 의해 붉어진 피부 진정 효과(1회 사용시)



탄력과 광채를 동시에 잡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는 동안 잊고 있던 피부에 대한 고민이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화와 함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마스크 안에 가려졌던 팔자주름과 늘어진 턱선, 광대뼈 위의 잡티와 기미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 탄력에 집중하자니 2년여 동안 깊게 자리 잡은 잡티와 기미가 눈에 띄고, 잡티 먼저 신경 쓰자니 촉 처진 페이스 라인을 외면하기 어렵다. 이렇듯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 반가운 제품이 등장했다. 바로 설화수 자음생 브라이트닝 라인. 세럼과 앰플로 구성된 자음생 브라이트닝 듀오는 자음생 라인의 독보적 탄력 강화 효능에 잡티 완화는 물론 피부 톤과 결을 개선하는 브라이트닝 기능을 더해 우리의 고민을 한결 덜어줄 제품이다.

진세노믹스™와 멜라솔브™가 만나다

설화수의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얻고 있는 자음생 라인의 핵심 성분은 진세노믹스™. 바이오컨버전 기술로 인삼의 생명력을 6천 배 농축한 안티에이징 성분인 진세노믹스™가 자음생 브라이트닝 라인에도 함유되어 피부의 힘을 탄탄하게 끌어올려준다. 여기에 아모레퍼시픽의 20여 년에 걸친 미백 연구 결과를 집약한 미백 특허 성분인 멜라솔브™가 더해져 눈에 띄는 잡티와 기미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피부 톤을 맑고 투명하게 가꿔 숙부터 은은하게 광채가 우러나는 피부로 변화시켜준다.

설화수 자음생세럼 브라이트닝은 얇고 가볍게 밀착되는 밀키 텍스처의 세럼으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끈적이지 않고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텍스처가 일품이다. 또 하이포알러지 테스트와 노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한 자극을 낮춘 포뮬러로 트러블성 피부라도 걱정 없이 바를 수 있고, 아침저녁으로 순하면서 효과적인 브라이트닝 케어가 가능하다. 피부에 즉각 스며드는 워터리한 텍스처의 설화수 자음생 앰플 브라이트닝은 멜라닌 침착을 억제하여 기미와 잡티를 집중 케어하는 멜라솔브™ 외에도 트라넥삼산, 비타민 C유도체(EAE)와 감초산이 더해져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개선해주는 제품이다. 이뿐 아니라 노랑과 칙칙한 톤을 개선해주는 동시에 열 자극으로 울긋불긋해진 피부의 붉은 기까지 진정시켜 피부 톤을 화사하고 생기 있게 가꿔준다. 무엇보다 2주 안에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자음생앰플 브라이트닝의 장점이다.

설화수 자음생 브라이팅의 놀라운 효과

탄력과 브라이팅을 동시에 잡다! 속부터 차오르는 탄탄한 탄력으로 더 환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할 브라이팅 듀오.

설화수 자음생앰플 브라이팅

기미와 잡티뿐 아니라 피부 컨디션까지 개선해주는 저자극 스팟 집중 케어 앰플. 20g, 14만원.

#2주스팟집중케어

아모레퍼시픽의 미백 특허 성분 멜라솔브™성분이 멜라닌 침착을 억제하여 기미와 잡티를 집중 케어해주고, 트라넥삼산, 비타민 C 유도체(EAE), 감초산이 더해져 맑고 깨끗한 피부로 개선해준다.

#3중톤브라이팅

아시아 여성의 노랄고 칙칙한 피부 톤을 개선해주는 동시에 외부 열 자극으로 울긋불긋해진 피부의 붉은 기를 진정시켜 생기 있게 빛나는 피부로 바꿔준다.

#탄력광채

진세노믹스™의 자생력이 피부의 힘을 탄탄하게 끌어올리고, 멜라솔브™의 강력한 브라이팅 파워가 티없이 맑고 투명한 광채를 선사해 속부터 차오르는 탄력 광채 피부로 바꿔준다.

#토달브라이팅

기미와 잡티 완화, 맑고 투명한 피부 톤, 매끄러운 피부 결, 광채 등 7가지 미백 항목 개선으로 입증된 토달 브라이팅 효과로 깨끗하고 화사한 피부로 바꿔준다.

#데일리저자극 브라이팅케어

하이포알러지 테스트와 눈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한 저자극 포뮬러로 트러블성 피부라도 걱정 없이 얼굴 전체에 바를 수 있고, 매일 아침저녁으로 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설화수 자음생세럼 브라이팅 탄력과 광채를 동시에 높여주는 데일리 저자극 탄력 브라이팅 세럼. 50ml, 22만원.

CHECK POINT

POINT 1

잡티와 탄력 케어를 동시에!

POINT 2

임상시험으로 증명된 확실한 효과

POINT 3

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팟 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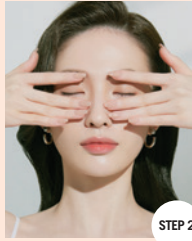
피부 톤을 환하게 만들어줄 마사지 테크닉

안색을 환하게 가꾸고 싶다면 설화수 자음생 브라이팅 라인으로 관리하면서
다음 안색 개선 마사지를 병행하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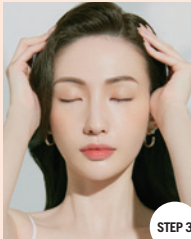
STEP 1

손가락 전체를 이용해
이마 중앙에서 양끝을 향해
부드럽게 쓸어준다. 3회
반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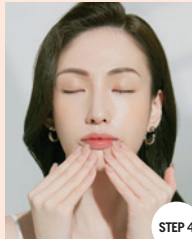
STEP 2

검지와 중지를 벌려
눈을 감싸듯 대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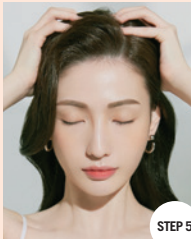
STEP 3

손바닥 안쪽의 도톰한
부분으로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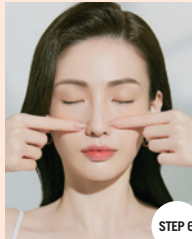
STEP 4

손가락을 모아 턱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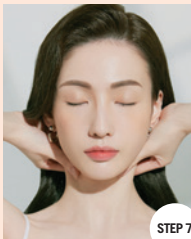
STEP 5

양손 손가락으로
정수리 중앙의 움푹 파인
곳을 지그시 누르고, 두피를
쓸듯이 마사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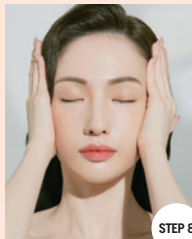
STEP 6

엄지와 검지로 얼굴
근육 구석구석을 깊게 잡고
꼬집듯이 자극한다.



STEP 7

양손 손가락에 힘을
주어 목 근육을 꼬집듯
자극하고, 승모근을 수시로
마시지한다.



STEP 8

양 손바닥을 펴서
관자놀이에서 귀 옆을
지나 귀 뒤,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준다.



나를 위한 앰플

여름의 초입. 날씨는 좋은데 피부 상태는 엉망이라면 앰플로
심폐 소생술을 시도해보자. 피부 문제별 관리 앰플을 모아봤다.

photographer CHOI MIN YOUNG(체품)
editor LEE SUNG JIN

마스크 때문에 여전히 자극받고 있다면
자음생앰플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요즘에는 마스크 속이 습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다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은 금물. 피부가 건조해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피부가 붉어지고 트러블이 생기는 등 자극을 받은 것 같다면 피부를 진정시키는 앰플을 추천한다. 설화수의 자음생앰플은 인삼 1,000g에서 오직 1g만 얻을 수 있는 안티에이징의 결정체 사포닌을 담은 진세노믹스™와 진생베리 성분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탄탄하게 다져준다. 사용 직전 용기 윗부분을 돌려 두 활성 성분을 섞어 쓰기 때문에 효과가 더욱 강력하다. 피엔케이 피부임상연구센터(주)에서 실시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 조사에 참여한 20~49세 여성 모두가 단 한 번 발랐는데 피부가 진정되었고, 단 한 병 사용 후 피부 탄력이 강화됐다고 답했다.



설화수 자음생앰플

단 한 번만 발라도 외부 자극으로 지친 피부를 개선해주는 레스큐 앰플. 20g, 14만원.

하루가 다르게 피부가 건조해지고 있다면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하이드로 앰플

여름철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 싫어서 가벼운 스킨케어 제품으로 바꾸거나 스킨케어 루틴을 줄인 뒤 피부가 부쩍 건조해진 것 같다면 수분 앰플을 추천한다. 헤라의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하이드로 앰플의 핵심은 3중 수분 관리! 미네랄이 풍부한 고성 해수와 피부 생체수 유지 시스템인 셀바이오프루이드싱크™가 피부에 즉각 수분을 공급하고, 히알루론산과 베타인 성분이 피부 속 수분을 붙잡아주며, 베타글루칸과 트레할로스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준다. 이 밖에 비타민으로 안색을 환하게 밝혀주며, BX 펩타이드와 리얼 콜라겐이 탄력을 잡아주는 효과도 있다. 4주 동안 쓰는 에스테틱 앰플로, 물처럼 가볍게 발리고 끈득하게 마무리되어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요즘 쓰기에 부담이 없다.



헤라 에이지 어웨이 에스테틱 BX 하이드로 앰플

수분을 충전하고, 잡고, 잠그는 3중 케어 시스템의 4주 프로그램 앰플, 5mlx12앰플, 13만원.

여름휴가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마스크를 낀다는 이유로 오래 방치한 피부 때문에 사진 찍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출발하기 한 달 전부터 입체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보이는 고효능 앰플로 관리해야 한다. 아모레퍼시픽의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은 생명력의 정수 앰솔루티™가 피부 속부터 케어해 피부 본연의 빛을 깨우고, 비타민 C의 20배 항산화 효과를 가진 EGCG리뉴얼 파우더가 입체적인 탄력을 선사해 다음 날, 피부로 느끼는 압도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직전 앰플과 파우더를 혼합하여 바르는 제품으로 성분의 효능을 최적으로 피부에 전달할 수 있게 고안된 제품이다. 일주일에 하나씩, 총 4주 동안 쓰는 인텐시브 케어 제품으로, 한 달 사용 후 결, 투명도, 탄력, 주름이 총체적으로 개선되어 젊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리뉴얼 앰플

입체 탄력을 완성해 주는 4주 사용 앰플 프로그램. (7ml+0.6g)x4앰플, 62만원.

피부가 칙칙해진 느낌이 든다면
시그니아 루미네소스 래디언스 앰플

태닝을 했는데도 건강한 광채가 나는 피부가 있는가 하면, 분명 톤이 어둡지 않은 데도 칙칙해 보이는 피부가 있다. 이는 피부 속에서 일어나는 산화와 당화 작용 때문.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두 활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피부 톤이 점점 누렇게 칙칙해진다. 헤라의 시그니아 루미네소스 래디언스 앰플은 나르시스와 피오니 추출물의 항당화, 항산화 듀얼 정화 효과로 피부를 맑게 가꿔준다. 여기에 골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흑진주의 3대 보석 광채 성분으로 눈부신 빛을 더하고 비타민 4종 콤플렉스와 머스크 시드 추출물이 더해져 피부를 건강하게 되살려주는 효과가 있다. 4주 사용 후 피부 톤이 1.5% 밝아지고 투명도가 7.3% 개선된 반면, 노란 기는 5% 줄었다는 실험 결과가 이 효과를 대변한다. ①



헤라 시그니아 루미네소스 래디언스 앰플

3대 보석 성분을 함유한 멜팅 앰플 텍스처가 특징이다. 피부의 활력을 깨우고 맑게 정화해 건강하게 가꿔준다. 40ml, 14만5천원.



부드럽고 달콤한 사이

요리를 잘하는 엄마와 엄마의 솜씨를 널리 알리고 싶은 딸. 두 사람이 합심해 만든
수제 견과류 강정은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애정처럼 달콤하고 부드럽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때로는 우연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끌
곤 한다. 모녀가 만드는 강정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마마넛'의 시작도, 어쩌면 우연이었다.
"엄마는 원래 음식 솜씨가 좋아요. 음식점을 해
보라는 권유를 종종 들었을 정도예요. 한번은
엄마가 간식으로 만들어주신 견과류 강정을 직
장에 들고 갔었는데, 그걸 먹어본 동료들이 너
나없이 맛있다고 감탄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부탁드려 회사에 싸 들고 가곤 했죠. 하
루는 엄마랑 TV를 보고 있는데, 플리마켓 광고
가 나오더라고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엄마랑
같이 참여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미 검증
을 받은 견과류 강정으로요." -강승현

온 식구가 매달려 참여한 플리마켓의 결과는
대성공. 엄마의 손맛이 지인들뿐 아니라 대중
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딸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
나며 자신의 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
았기에 엄마에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
어주고 싶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준비해서 론
칭한 브랜드가 마마넛이다. 이후 벌써 8년째,
두 사람은 함께 마마넛을 이끌고 있다.
두 사람의 업무 분담은 명확하다. 음식 제조와
매장 관리는 전적으로 엄마의 몫. 딸은 판매 기
획과 마케팅, 재료 발주, 상품 디자인과 패키징
제작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강정을 판다기보다
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라고 여기며
지금까지 함께 이끌어왔기에 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제품 하나하나를 자식처럼 여기다
보니 더 잘하고 싶은 맘에 의견을 많이 내게 되

고, 그러다 보니 충돌도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느 모녀사이가 그렇듯, 누구보다 서로
를 잘 이해하는 두 사람은 금방 마음을 풀고 의
기투한다.

"처음 제품을 판매했을 때, 설렘보다는 '맛있어
서 고객이 만족해야 할 텐데'라는 걱정이 더 컸
어요. 지금도 긍정적인 피드백보다는 악플에 더
신경을 쓰죠. 그런데 고맙게도, 리뷰를 보면 좋
은 평이 대부분이에요. 마마넛 제품을 먹어보
고 깜짝 놀랐다는 리뷰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요. 딸아이는 '이 가격보다 더 받으셔야 해요'라
는 댓글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만들려는 노력을 고객들이 알아주는 것 같아
요." -유덕남



오랜 기간 함께 일해왔지만, 두 사람은 지금 짝
은 헤어짐을 앞두고 있다. 딸 강승현이 해외에
서 업무 중인 아버지 곁으로 잠시 떠나는 것. 물
론 그곳에서도 같이 일을 할 예정이지만, 엄마
유덕남 혼자서도 마마넛을 이끌어갈 수 있게
조금씩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얼마 전부터는
엄마의 레시피를 기록하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
했다. 두 사람의 추억을 담고 영상으로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인터뷰 말미에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규모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사업을 제대
로 키워 딸에게 잘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고. 다소 우연히 시작했지만 단골 고객이 늘어
나고 마마넛을 아끼는 고객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다. 이런 엄
마를 보며 딸은 부담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그
랬듯이 즐겁고 행복하게 일하라고 말한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이나 빼얇고 부드러운
피부도 똑 닮은 모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도
피부에서 건강한 광채가 난다 했더니, 무리했다
고 생각되는 날에는 꼭 팩을 하고, 클렌징에 철
저하며, 잡티 걱정에 늘 자외선 차단제를 목까
지 꼼꼼히 챙겨 바른단다. 두 사람의 삶에 함께
하는 견과류도 건강한 피부를 지키는 데 큰 몫
을 했을 터다. 화사한 두 사람의 피부만큼, 마마
넛의 미래도 견고하게 빛나길 바란다. **10**

아름다움은 자란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아름다움이
세대를 거쳐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향장은 이 시대 모든 어머니와 딸을 응원합니다.

잡티 없는 여름을 위해

외국인 모델들의 주근깨는 예쁘기만 한데,
내 뺨의 잡티는 왜 이렇게 보기 싫은지.
이번 여름에는 부디 인상을 칙칙해 보이게
만드는 잡티와 이별할 수 있길.

photographer CHOI MIN YOUNG(제품)
editor LEE SUNG JIN

#1 잡티를 알고 나를 알자

잡티를 이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잡티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 보통 5~6mm 이하의 타원형 갈색 반점인 주근깨는 유전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자외선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황인종보다 백인종에게 많이 생기고, 얼굴뿐 아니라 팔 윗부분, 손등, 앞가슴 등에도 나타날 수 있다. 보통 5세 이전에 생기고 사춘기를 지나며 심해지지만 표피층에만 자리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 반면에 대체로 20대 이후에 생기는 기미는 갈색 혹은 검은색이고, 원인은 자외선과 유전, 호르몬, 스트레스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여성호르몬의 영향이 커서 임신한 여성의 50~70%에 생기고, 폐경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하지만 주의할 것은 자외선으로 인한 주근깨와 기미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 특히 진피층부터 표피층까지 고르게 분포한 기미는 한번 생기면 잘 사라지지 않아 고민거리가 되곤 한다.

#2 사후약방문은 그만

기미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라지기 전에 자외선을 많이 받아 색이 더 짙어지고 만성적인 잡티로 자리 잡는다. 따라서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멜라닌이 과잉 생성되지 않게 도와주는 자외선 차단제가 최고의 예방책이다. 그러므로 하루 종일 실내에 머무는 날에도 매일 챙겨 바를 것. 특히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에는 UVB를 차단하는 SPF 지수가 30 이상이고, UVA를 차단하는 PA가 ++ 이상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외출하기 20~30분 전에 바르고 2~3시간 주기로 덧바르는 것은 기본. 특히 기미는 자외선이 가장 먼저 닿는 뺨에 잘 생기기 때문에 알이 큰 선글라스나 양산 등으로 자외선을 철저히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프리메라 스킨리프트 UV 프로텍터 SPF50+/PA++++

자외선을 차단하고 촉촉함을 오래 유지해주는 이지 워셔블 선크림. 블루라이트와 피부 진정 성분이 강화됐다. 50ml, 3만원.

2. 헤라 UV프로텍터 멀티디펜스 SPF50+/PA++++

UVA와 UVB, 블루라이트, (조)미세먼지, 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가꿔주는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에 노출되면 안티에이징 효과가 더욱 강해진다. 50ml, 4만원.



#3 각질 제거는 필수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는 두껍고 칙칙해진다.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가 늘어나고 각질층이 두꺼워지기 때문. 따라서 과도하게 늘어난 각질을 없애고 피부 턴오버 주기를 맞추면 티 없이 맑고 투명한 피부를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매일 저녁 노폐물과 각질을 씻어내는 딥 클렌징 폼을 쓰고, 일주일에 1~2회 묵은 각질까지 벗겨내면 진피층에서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 깨끗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춰 자극이 없는 필링제를 골라 쓰고, 피부 상태에 맞춰 사용 횟수를 조절하며, 필링 후에는 꼭 마스크팩을 해서 수분과 영양분을 채워주길 권한다.

1. 프리메라 페이스 인텐시브 필링

피부 표면의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흡착해 제거하고, 고운 피복결로 가꿔준다. 150ml, 3만원.

2. 헤라 멜라솔브 프로그램 딥 클렌징 폼

셀룰로오스 비드와 헤라의 독자 성분인 멜라솔브™ 성분을 함유한 부드러운 거품이 피부를 투명하고 맑게 만든다. 200g, 3만5천원.

TIP

*잡티 시술을 한다면

기미 시술은 통상적으로 레이저 요법과 화학적 처치로 나뉜다. 레이저 시술의 경우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뿌리가 깊은 기미를 관리하는 데 효과가 있으나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바르는 연고나 화학적 시술은 멜라닌 색소 생성을 방해하는 원리로, 예민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 수 있다. 사실, 시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 관리. 피부가 붉어지거나 딱지가 생기면 떼어내지 말고 충분히 보습하며, 얼굴 마사지는 일주일 정도 피하는 것이 좋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금물. 세안할 때도 과도하게 문지르지 말고 무엇보다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4 믿음직한 스킨케어 제품의 힘을 빌리자

잡티 관리 제품이나 브라이트닝 제품을 꾸준히 쓰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제품 선택에 앞서 두 가지에 신경 써야 한다. 바로 성분과 기술력. 피부를 환하게 만드는 성분 중 일부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성분의 안정화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믿음직한 성분으로 잘 만든 제품을 골라 써야 한다. 사용 기간도 중요하다. 각질 탈락 주기에 맞춰 잡티가 탈락되는 원리를 적용한 제품이기에 때문에 적어도 28일 이상 꾸준히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①**

1. 아이오페 A.C.E 비타민 C30

순수 비타민 C를 30% 함유한 초고함량 기능성 앰플. 23g, 8만원.

2. 설화수 자음생세럼 브라이트닝

진세노믹스™가 피부의 힘을 끌어올리고 멜라솔브™가 광채 피부를 선사한다. 50ml, 22만원.

3. 설화수 자음생앰플 브라이트닝

기미, 잡티를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주고,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스팟 집중 케어 앰플. 20g, 14만원.





식물과 함께하는 삶

서울의 도심 한복판, 집들이 촘촘히 들어선 곳에 식물원이나 전원주택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아뜰리에 노노에에 김민주 대표의 집이 있다.

photographer HAN DONG WON, editor LEE SUNG JIN

김민주 대표의 집 사진을 먼저 본 후 촬영을 위해 집 앞으로 찾아갔을 때, 자못 당황한 것이 사실이다. 따뜻한 햇빛이 내리쬐는 푸르푸르한 온실과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발한 화단을 보면서 큼직한 전원주택을 머릿속에 그렸는데, 주소를 따라와 보니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서울 도심 속 한 건물 앞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1층의 X호'라는 말을 듣고는 펍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 마주한,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보며 한 번, 그리고 베란다 너머 온실을 통해 들어오는 싱그러움 늦봄의 정취를 느끼며 또 한 번 사라졌다.

"사실 제가 평소 생각하던 집보다 크기가 많이 작고, 살면서 한 번도 와본 적 없던 동네라 다소 망설였어요. 하지만 베란다 크기와 화단 상태에 반해 덜컥 계약했습니다. 살아보니 서울 한복판에 위치하면서도 자연과 가깝고 치안이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집에서는 주로 낮보다 밤에 활동하는 편이기 때문에 늘 아래층을 신경 써야 하는데, 이 집은 1층인 데다 큼직한 화단도 있어서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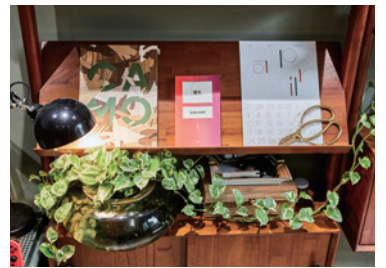
좁은 공간에서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넓은 집은 청소하는 게 부담스러운 작은 집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18평 남짓한 좁은 실내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12평에 가까운 테라스를 보고 바로 마음이 움직였다. 그리고 평소 꿈꾸던 것들을 담아 직접 인테리어를 시작했다. 도쿄나 홍콩, 런던 등 집값이 비싼 도시의 아파트나 빌라 인테리어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상수동의 작은 카페



@atelier_nonoyeye

김민주

식물을 좋아하는 아트 디렉터 겸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순수미술을 전공한 뒤 광고업계에서 아트 디렉터 겸 포스트 프로덕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든든한 남편과 고양이 두 마리,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과 함께 삶을 꾸리는 중.



나 식당, 소름 등에서 인상적인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두며, 소재 라이브러리에 가서 건축자재를 둘러보거나 흥미로운 소재의 샘플을 수집해둔 것이 도움이 됐다.

이 집을 고치며 가장 신경 쓴 점은 두 가지 무드가 공존하도록 하는 것

"집 복도를 중심으로 거실은 차갑고 모던하게, 테라스 쪽은 빈티지하고 내추럴하게 채우고 싶었어요. 작은 집은 보통 넓어 보이게 하려고 밝은색을 선택하는데, 전 과감하게 어두운색을 사용했어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하얀 공간은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제 눈에는 좀 밋밋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인 화이트 벽과 우드 가구 디자인을 조금 바꿔 아트월 전체를 옛날 나무 집처럼 레트로풍 우드 템바 보드로 시공하고 가구는 화이트 계열로 통일했어요. 바닥재는 원래 있던 것을 그대로 살렸는데, 이 덕분에 공간이 더 예쁘게 완성된 것 같아요."

깔끔한 거실과 자못 다른 주방 디자인은 남편이 뜻에 따랐다. 검은색 가구 위에 원목 상판을 얹은 주방 가구와 벽면에 붙여둔 마그네틱 나이프 홀더는 남편이 절실히 원했던 부분이라고 한다. 시공 전에는 가뜰이나 좁은 실내에 검은색 가구를 놓으면 더 좁아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완성하고 보니 이 집에 딱 어울리는 공간이 된 것 같다. 집의 가장 바깥쪽에 자리한 취미방 겸 운동방 역시 남편의 요청을 반영한 공간인데, 온실과 화단이 잘 보이는 이곳은 지



금 부부와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됐다. 부부는 취미로 타는 자전거를 이곳에 보관하고, 안마기에 누워 휴식을 취하며, 고양이들은 캣타워에 올라 화단에 놀러 온 새를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머물곤 한다. 거실의 모던한 느낌과 대비되는 따뜻한 색감의 가구와 커튼, 여행지에서 모은 빈티지 소품들, 유럽 시골의 주택에서 볼 법한 올리브그린 컬러 벽은 이 방을 더욱 편안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준다.

욕실도 독특하다. 좁은 공간임에도 반 정도를 당당히 차지한 샤워 부스가 눈에 띄는데, 이는 발에 물이 묻는 것을 싫어하는 안주인의 성향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 인테리어를 위해 만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을 만큼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한 소장님만이 재밌겠다며 호응해주었다고 한다. 그 모습에 반해 그분에게 현장 시공을 부탁했고, 김민주 대표는 원하는 욕실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많은 곳을 바꾸고 칠했지만, 인테리어에 든 비용은 자재를 포함해 2천5백만원 남짓. 전반적인 디자인은 아이패드로 그린 도면을 적극 활용해 직접 하고,

매일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며, 직접 구매한 자재를 썼기에 가능한 금액이다.

사실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따로 있다. 바로 해외의 인테리어 사례에서 볼 법한 온실. 식물에 애정이 많고 늘 식물과 함께 살아온 그는 넓은 베란다 한켠을 채우고 있던 퍼걸러(pergola)를 과감하게 온실로 바꿨다. 식물에 적합한 광량과 습도를 유지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키우던 식물에 몇몇 새로운 식물을 더해 이곳을 채웠다. 그와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반려 식물들은 이제 바쁜 일상에서 그의 휴식을 책임지는 고마운 삶의 동반자다.

“바쁠 때 가드닝이 더 즐겁고 달콤하게 느껴져요. 마음을 어루만져주거든요. 비싼 식물을 새로 들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저와 함께 살아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욱 애정이 가요. 평소 트위터에서 식물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새로운 식물에 대한 정보를 얻기보다는 집에 있는 아이들을 더 잘 키울 방법을 알기 위해 찾아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수많은 식물을 돌보는 일이





TIP

김민주가 말하는 온실 설치 노하우

1. 단열재를 선택할 것

온도 조절에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해도, 극도로 덥거나 추운 계절이 오면 식물들이 버티기 힘들 때가 있다. 따라서 **단열이 되는 3~4중 유리**로 온실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민주 대표는 비용을 고려해 **홀경유리**로 시공했는데, 그 점이 지금까지도 **무척 아쉽다**고 한다.

2. 실링 팬을 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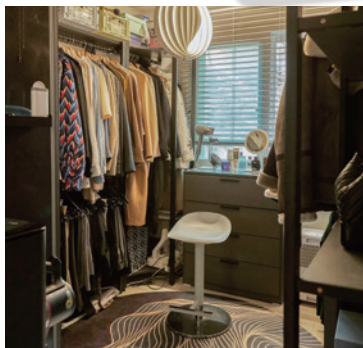
온실이 야외와 실내의 중간 정도 공간이긴 하지만, **식물의 건강에 무엇보다 중요한 환기**를 위해 **실링 팬**을 꼭 달아야 한다. 창문을 열더라도 따로 공기 순환 장치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의 온실에 달린 거대한 실링 팬은 1년 3백65일 회전하는 중.

3. 설계 시 난로 자리를 고려할 것

식물의 건강을 위해 난로는 필수다. '전기난로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한 그는 첫째 겨울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지금은 **등유 난로**를 쓰고 있다. 대부분 연비를 고려해 **연탄난로**를 쓰는데, 연통 등의 설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 시 **난로의 배치나 설비** 등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힘들 법한데도, 그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키우던 식물이 죽는 일도 많았지만, 오랜 시간 식물 집사로 살면서 자신과 맞는 식물을 알아낸 뒤에는 새로운 식물을 입양하는 대신 함께해온 아이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늘 온실 문을 열어두기 때문에 집안으로 벌레가 들어와도, 가끔 식물의 잎 하나가 시들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의 삶의 태도 덕분에 이런 삶이 가능했을 터다. 김민주 대표가 사랑하는 요소로 가득한 집. 그 집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진 것은 비단 봄벌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10**



@yoonjoo_



저녁에 맛난 거 먹고 영양제도 맛난 거 먹고 맛있어서 더 먹고 싶은 맛! 들고 다니기도 편하다. 이제 꿀 피부 만들자!

@s_m0524



이제는 콜라겐도 마시면서 관리하기. 가방에 소옥 넣어 다니면서 마시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쉽잖아. 저녁 스킨케어 후에 마시고 먹고 콜라겐 관리 끝!

@sjy8353



피부 관리는 끝이 없어서 귀찮을 때가 많지만, 할 때 마다 달라지는 걸 느끼기에 오늘도 콜라겐 한 병 마시고 하루를 마무리해요. 콜라겐에 비타민 C, 히알루론산 함께 먹으면 더 좋다니 이젠 슈퍼콜라겐 플래티넘으로 매일 챙기려고요.

@ailee06



자기 전에 나의 루틴은 마시는 콜라겐. 콜라겐 함량이 더 늘어난 슈퍼콜라겐 플래티넘으로 피부는 물론 건강까지 챙겨요. 상큼한 체리레몬맛이라 맛있어서 더 좋아요.

생생한 제품 평가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플래티넘을 체험해 본 품평단 10인의 솔직한 소감.

photographer CHOI MIN YOUNG
editor LEE MI KYUNG

@good.sh.c



마시는 액상 앰플과 정제로 구성된 이중 제형으로 피부 겉부터 속까지 촉촉하게 가꿔주는 프리미엄 콜라겐이에요. 침대 옆 협탁에 딱, 자기 전 남남, 주름은 채우고 보습에 탄력, 생기까지 퐁퐁! 자기 전에 까먹지 않고 먹는 중.

@sun_you.a_



콜라겐 마시고 더 예뻐져야지.

@iam_soojung_



요즘 잠자기 전 내 루틴은 콜라겐 마시기. 콜라겐 함량이 더 늘어난 슈퍼콜라겐 플래티넘으로 피부는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말씀! 콜라겐을 가방에 소옥 넣어 다니면서 관리 끝!

@eunryori



마시는 콜라겐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간단하게 마실 수 있고 간편하게 피부 탄력을 관리할 수 있어 추천해요! 나이 들수록 피부 관리가 어려운데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so5ning_log



물도 잘 안 마시면서 피부가 어쩔
탱탱하냐며 신기해하는데 물은 안
마셔도 콜라겐은 챙겨 먹거든요!
식약처 기능성 인증을 받은 데다
비타민 C와 히알루론산까지
콜라겐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건 다
들어 있는 슈퍼콜라겐 플래티넘으로
똑똑하게 챙기세요.

#기능성콜라겐
#광채피부
#2중보습케어

바이탈뷰티 슈퍼콜라겐 플래티넘
750ml(25ml×30캡슐)+38.7g(540mg×30정,
750mg×30정), 18만원.

저분자 콜라겐을 비롯해 히알루론산,
비타민 C 등 기능성 원료를 함유해 피부 속부터
겉까지 촉촉하고 밀도 있게 케어하고 화사한
광채를 더해주는 프리미엄 이중 제형 콜라겐.



@yooooon_ha



어린이날 기념으로 나에게 주는 선물,
마시는 콜라겐, 마시는 타입이라서 더
편하게 이너뷰티 챙기기 가능.



동네 앞, 커피 맛집

에스프레소와 시그니처 커피로 인스타그램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커피 맛집을 소개한다.

photographer LEE SEOK YEONG editor LIM SU AH



에롤파

40년 된 성수동의 낡은 공장이 카페와 스튜디오를 겸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에롤파'는 이곳 1층에 있는 카페로, 비건 샐러드와 샌드위치에 주력한다. 모든 메뉴는 최소한의 양념만 더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렸다. 비건 식빵에 당근 라페와 적채,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까지 더한 '발사믹 머쉬를 샌드위치'가 이곳의 별미. 이 외에도 수제 요거트, 감자 뇨키 샐러드 등 브랜드용으로 손색없는 메뉴를 찾았다. 매장에는 구매 가능한 빈티지 잔이나 소품, 식기류를 진열해두었다. 비건 화장품을 비롯해 친환경 제품을 취급하는 다양한 브랜드도 흡인습 형태로 입점해 있다.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87길 21 1층
영업시간 화~일요일 10:00~22:00(월요일 휴업)
문의 @tool_coffee

RECOMMEND

감자 뇨키

바질 페스토 샐러드
쫄깃한 감자 뇨키와 상큼한 바질 페스토, 에롤파만의 레시피로 버무린 채소들까지. 한 끼 식사로도 훌륭한 인기 비건 메뉴다.



RECOMMEND

마키아토

에스프레소에 설탕과 우유 거품이 들어가는 이탈리아식 마키아토. 부드러운 풍미로 편하게 마실 수 있어 에스프레소 입문자에게 제격이다.



오르소 에스프레소 바

후암시장 근처에 위치한 '오르소 에스프레소 바'는 주황색 의자와 기다란 바 테이블이 눈에 띄는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바다. 이곳에서는 에스프레소가 쓰거나 맛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허울 수 있도록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커피를 선보인다. 에스프레소에 특제 초콜릿 소스와 우유, 크림을 넣은 '마로키노'가 대표 메뉴. 에스프레소 메뉴를 시키면 함께 나오는 탄산수는 커피를 마신 뒤 텅텅한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준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107 1층 105호
영업시간 수~월요일 08:00~19:00, 화요일 휴업
문의 @orso_espressobar



RECOMMEND

사케라토와 발로나 티 케이크 상큼한 레몬 맛과 차가운 에스프레소 거품이 만나 기분 좋은 한 잔을 선물하는 사케라토와 커피나 차에 곁들이기 좋은 티 케이크.



펠른 에스프레소 바

커피와 디저트 페어링 코스를 선보이는 브루잉 바 '펠른'에서 새로 오픈한 비건 에스프레소 바. '펠른'은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툭툭 떨어지는 커피 방울의 반짝임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이름으로, '반짝이다'와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고소한 아몬드 밀크와 진한 에스프레소를 조합한 '비건 라테'와 두 종류의 파베 초콜릿을 넣은 '파베프레소' 등 비건 메뉴와 디저트를 함께 판매한다. 지난 3월 리뉴얼 오픈했으며,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니 참고할 것.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2길 18
 영업시간 금~일요일 12:00~20:00, 월~목요일 휴업
 문의 070-4227-0741



드로우 에스프레소 바

작년 9월 청파동에 문을 연 '드로우 에스프레소 바'는 커피를 매개로 행복을 배가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시그니처 메뉴는 에스프레소 위에 코코아 파우더를 뿌린 '카페 피에노'. 커피와 수프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커피 & 치즈 감자 수프'나 '클래식 티라미수'도 인기가 많다.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바 테이بل 너머로 손님과 소통하길 바라는 곳이다. **1D**

주소 서울시 중구 청파로 453 1층
 영업시간 월~금요일 7:00~18:00, 토요일요일 10:00~18:00, 수요일 휴업
 문의 02-6404-8950



RECOMMEND

카페 리에토 싱글 에스프레소에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넣고 올리브 오일을 뿌린 메뉴. 멜론 아이스크림을 먹듯한 식감이 특징이며 올리브 오일을 넣어 커피의 맛과 향을 한껏 살렸다.



이달의 필수템 미리보기

에디터가 간간하게 고른 6월의 강추템.

photographer PARK JAE YONG
editor CHOI HYANG JIN



**아모레퍼시픽
모이스춰 플럼핑
넥타크림**
왕대나무
수액과 진액으로
꼭채워 수분으로
차오르는 듯한
수분 플럼핑
효과를 선사하는
크림. 50ml,
15만원.

**설화수 자음생세럼
브라이트닝**
탄력과 광채를 동시에
잡아주는 탄력
브라이트닝 세럼.
50ml, 22만원.



CONCENTRATED
GINSENG
BRIGHTENING SERUM
SERUM ÉCLAIRCISSANT

A.C.E.
VITAMIN C30

Pure vitamin C
30%

IOPE

**아이오펜 A.C.E.
비타민 C30**
최고의 항산화 성분인 순수
비타민 C를 30% 함유한
초고함량 기능성 앰플.
23g, 8만원.



**바이탈뉴티
슈퍼콜라겐
플래티늄**
저분자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을
함유하여 피부
겉부터 속까지
촉촉하게 케어하는
프리미엄 이중 제형
콜라겐.
750ml(25ml×
30앰플)+38.7g
(540mg×30정,
750mg×30정),
18만원.



**프리메라 모이스처
클렌징 티슈**
부드럽고 촉촉한
감촉으로 간편하게
메이크업 노폐물과
피지 등을 제거해주는
클렌징 티슈.
60매, 2만2천원.



CONCENTRATED
GINSENG
BRIGHTENING SPOT AMPOULE
AMPOULE ANTI-TACHES
ÉCLAIRCISSANTE

**설화수 자음생앰플
브라이트닝** 눈에 띄는
기미와 잡티뿐 아니라
피부 컨디션까지
개선해주는 저자극
스팟 집중 케어 앰플.
20g, 14만원.





슬리머디엑스
Slimmer DX

25 ml

바이탈뷰티